

중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 차이 교육의 필요성 연구¹⁾

김 익 조(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조교수)*

《요약》

이 연구는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중속접속문이나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다루어 왔던 문장의 의미 차이에 관해 '전경-배경' 이론에 근거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어교육에 적용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일한 문장을 '접속'의 관점에서는 중속접속문으로 처리하고 '내포'의 관점에서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처리해 온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두 입장에서 의미의 차이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포와 접속은 의미론적인 문제이므로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처리해 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장의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른 것으로 보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았다.

접속과 내포가 문장 확대의 범언어적인 문법적 절차이지만 어말어미에 의해 문법적인 범주가 결정되는 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어에서 접속과 내포는 개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중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사론적인 처리와 달리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국어의 접속과 내포는 개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 결과 인지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장의 구조가 다르면 의미도 달리 나타나는데 기존 입장에서 의미 차이에 관해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중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에 관해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통일된 학교 문법 교육에서 지금까지 의미 차이에 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왔던 것처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기술되어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두 문장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문법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내포와 접속의 개념, 이들을 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다룬 사항들을 2장에서 검토한 후 3장에서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인 '전경-배경' 이론에 근거하여 국어 교육적 적용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문장의 의미 차이에 관한 사실을 통일된 학교문법에도 반영하여 문법 기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접속, 내포, 인지언어학, 전경, 배경, 접속어미, 중속절, 주절, 부사절

1) 본 연구는 2013년 동국대학교 신입교원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ukjokim@daum.net

I. 들머리

이 연구는 ‘접속’의 관점에서는 종속접속문으로 처리하고 ‘내포’의 관점에서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해 왔던 문장의 의미 차이²⁾와 그것에 관한 국어 교육적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통사론 연구에서 ‘내포’와 ‘접속’이라는 범언어적인 문법 현상에 기반하여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에 관한 통사론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문장의 구조나 구성 요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의미적인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국어에서 접속과 내포의 구별은 개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사론적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둘의 차이에 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학교문법 교육에서도 둘의 의미 차이에 관해 교육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출발점은 접속과 내포가 국어에서는 동일한 위치의 어말어미로 실현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장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 (1) a. 소리도 없이, 비가 내렸다.
b. 비가 소리도 없이 내렸다.

기존 문법 처리에서 (1a)에서 ‘소리도 없이’는 접속의 관점에서 종속접속문으로 처리되었다. 즉, 주절인 ‘비가 내렸다’에 종속된 절로 본다. 하지만 (1b)에서 ‘소리도 없이’는 내포의 관점에서 부사절로 처리하였다. 여기서는 ‘비가 내렸다’는 문장 속에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로 안긴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학교문법에 따르면 종속접속문은 이어진 문장으로 처리되고 부사절은 안은문장으로 처리되고 있다.³⁾ 아울러 이들 두 문장 간의 의미 차이에 관해서는 지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의 두 문장은 구조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형태나 구조 혹은 구성 요소가 다른 두 문장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 서면 (1ab)의 의미는 서로 다

2)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논문에 대해 더욱 좋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필자가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 논문에 제시된 자료로는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일반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종속접속문’을 부사절로(혹은 부사절처럼) 변형하여 어순을 바꾼 문장의 대비 정도로 한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비되는 문장 말고도 흔히 종속절로 불리는 다양한 문장과 필수적인 부사절을 가진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사절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

3) 이에 관해서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부사절로 안긴 문장을 만들 때는 부사화 접미사 ‘-이’를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 즉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게 되면 수많은 부사형 전성 어미가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게, -도록, -어서’ 등이 있다(이관규 외, 2013, p. 109).

르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내포와 접속의 개념,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에 관해 학교문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2장에서 검토한 후 3장에서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인 '전경-배경' 이론에 근거하여 두 문장의 의미 차이와 이에 관한 국어 교육적 적용의 필요성과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종속접속문, 부사절을 안은문장과 학교문법

1.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

영문법을 비롯한 인국어 문법에서 합성문을 중문(compound sentence)과 복문(complex sentence)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두 절이 결합하여 중문과 복문을 이루는 방식을 각각 병렬(coordination)과 종속(subordination)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등절(coordinate clause)과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을 구분한다(이익섭, 2003, p. 33).

국어에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그 이상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어서 그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을 홑문장이라 하고 주·술 관계가 그 이상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겹문장이라 한다(남기심, 고영근, 1985, 2011, pp. 383-384).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접속'과 '내포'이다. 이익섭, 채완(1999, p. 380)에 따르면 접속(conjoining, conjunction)과 내포(embedding)는 겹문장을 만드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접속은 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는 방식이고, 내포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접속'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분류에서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두 절 사이의 관계를 대등적인 것(대등접속)과 종속적인 것(종속접속)으로 나누었다. 이때 사용된 접속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접속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앞의 종속접속은 배제하고 대등접속만을 접속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좁은 의미의 접속이다. 지금까지 접속과 내포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다루어졌다.⁴⁾

(2) a. 접속과 내포를 별개의 구조로 보면서 접속의 체계에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을 인정하는 견해

b. 접속을 인정하되 종속접속을 내포의 일종인 부사절로 처리하고 접속에는 대등접속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4) 각 항목의 대표적인 논의는 유현경(2011a, p. 403) 각주 17-19 혹은 이관규(2002, pp. 400-401) 참조.

c. 접속과 내포가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기존 관점에서는 (2)처럼 세 부류로 나뉘었다. 이 연구의 주제에 관해 (2a)의 관점에서는 종속접속문으로 처리하였고, (2b)의 관점에서는 부사절로 안긴문장으로 처리하였고, (2c)의 관점에서는 때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내포와 접속을 구분하였는데 의미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3) 우리 학계에서는 이상하게도 종속절이 따로 있고 그와 별개로, 그와 대등한 층위에 명사절이나 관형사절 및 부사절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사절이란 달리 말하면 부사종속절(adverbial subordinate clause)이다. 어떤 절이 부사절이라면 그것은 종속절이다. 종속절이 상위어이므로 그 하위어인 부사절은 자동적으로 종속절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절을 두고 그것이 부사절인지 종속절인지를 가리지 못해 고심들을 해 왔고, 이 절은 부사절로 보내고 저 절은 종속절로 보내노라고 힘든 결정을 발표하는 따위의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이익섭, 2003, p. 37).

(3)에 따르면 부사절은 통사론적으로 보면 종속절이므로 이 둘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류를 범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지적은 두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예(서태룡, 1979, p. 110)에서는 통사론적인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의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4) a. 철수가 술을 **마셔** 버렸다.
b. 철수가 술을 **마셔** v **버렸다**.
(진한색: 의미의 초점, v: 휴지)

(4)에서는 의미의 초점이 놓인 구성 요소와 휴지의 차이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됨을 지적하고 있다. (4a)는 내포문으로, (4b)는 접속문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이것은 의미의 초점과 휴지가 내포문과 접속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어미 형태가 아닌 표면의 다른 현상 때문에 의미가 달라짐을 뜻한다. 즉, 통사론적으로 내포와 접속의 차이가 있는 문장이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주제에 관한 학교문법에서의 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변화가 많았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학교문법에서의 처리

고등학교 문법은 1985년 단일 국정 교과서로 편찬된 이래 국정 교과서로만 네 차례에 걸쳐 교과서가 편찬되었는데 2001년까지는 1985년의 체계가 유지되었으나 2002년에 와서 부사형 어미를 다시 세움으로써 체계가 많이 달라졌다. 즉, 현재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나오기까지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국어 부사절에 관한 관점이 확연히 구별되는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현재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6차 교육과정

먼저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미를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누고 어말어미는 다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하위 부류로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로 나누었다. 부사절을 만드는 어미에 관해서는 연결어미의 하위 부류인 ‘종속적 연결어미’로 처리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 설명한 부사절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6, p. 77).

- (5) a.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 b.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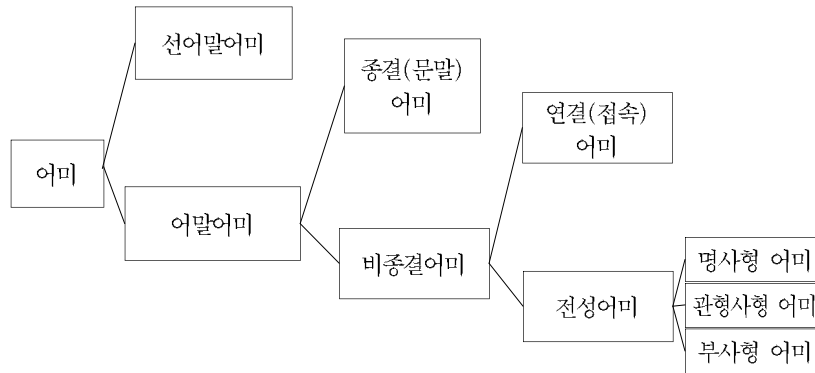
6차 교육과정에서는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5)에서처럼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다’, ‘아는 것도 없다’에 붙은 ‘-이’를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합하여 부사절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문법』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하여 2002년도부터 사용되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부사형 어미 설정에서 이전의 교과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a, p. 103).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전성어미 하위에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해설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2002b, p. 134)를 살펴보면 부사형 어미는 다시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이전의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통틀어서 주절(문장)을 수식하는 문장 수식의 부사형 어미로, 다른 하나는 단어 수식의 부사형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대등적 연결어미까지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이익섭, 채완(1999, p. 222)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그림 1] '이익섭, 채완(1999)'의 어미 체계

[그림 1]에서는 비종결어미 아래에 연결(접속)어미와 전성어미를 두었는데 이것은 연결(접속)어미는 '접속'으로, 전성어미는 '내포'로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부사절을 안은문장에 관해서는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예문을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2a, pp. 163-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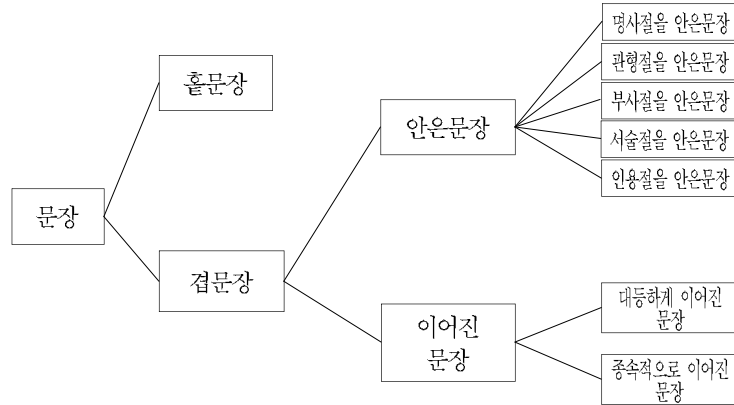
(6)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예문 (6)과 관련해서 '국어에서 '-(아)서'와 같은 종속적 연결어미로 된 절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어미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⁵⁾는 6개 출판사에서 『독서와 문법』으로 검인정 교과서가 나왔다. 그 중 지학사 교과서의 '문장의 구조'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삼형 외, 2013, pp. 204-211).

5) 이 교과서는 2014학년도부터 사용되고 있다.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6개 출판사(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 미래엔, 창비, 비상교육)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그림 2] 2009 개정 『독서와 문법』 문장 유형(지학사)

[그림 2]를 통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서에 제시된 다음의 탐구 과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탐구 과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의 관계에 대해 탐구해 보자.
 a.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b.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이 탐구과제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 ‘날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7)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처리하면,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 남게 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의 구별이 모호하므로, 이러한 체계를 선택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이삼형 외, 2013, p. 211).

[그림 2]를 (7)의 내용대로 수정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없어지고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만 남게 된다. 이런 처리 방식은 통사론적인 입장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견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용언으로부터 파생된 부사들만 서술어의 구실을 하고 있는 부사절로 보았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속절을 부사절로 인정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종속적 연결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본 것이다(박덕유, 2006, p. 25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예문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 a.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b. 날씨가 바람이 부니 춥다.
c. 바람이 부니, 날씨가 춥다.

(8)은 모두 겹문장인데 일반적으로 (8ab)를 놓고 본다면 (8a)를 접속문으로, (8b)는 내포문으로 설명한다. (8ac)를 서로 대조시키면 (8a)는 대등접속으로 처리하고 (8c)를 전통적 관점에서는 종속접속으로 처리해 왔다. (8b)의 경우 ‘바람이 부니’를 내포문의 관점에서 안은문장으로 처리하지만 접속의 관점에서 종속접속문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때 (8bc)의 의미 차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약 (8bc)에서처럼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모든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은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태엽(2009, p. 3)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종속접속문의 모든 선행절을 내포문의 부사절로 처리할 수는 없다.

- (9)⁶⁾ a. 영수가 산을 넘어오느라고, 힘이 빠졌다.
b. *힘이 영수가 산을 넘어오느라고 빠졌다.

종속접속문인 (9a)를 (9b)처럼 내포문의 부사절로 처리하면 비문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8bc) 두 문장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또 언어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도하는 의미가 다르면 형태를 달리 사용한다. 그러므로 (8ab)도 표현 의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들의 의미 차이와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적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의미 차이와 국어교육적 적용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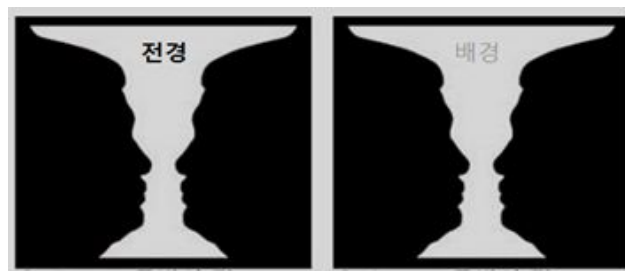
1. ‘전경-배경’을 통한 의미 해석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황을 부호화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 서로 개념화를 달리 구성한다(임지룡, 김동환 옮김, 2003, p. 2)고 본다.

6) 김태엽(2009, p. 3) 4번 예문.

- (10) a. John gave the book to Mary.
b. John gave Mary the book.

(10)의 두 예문은 구조적으로 차이를 가지지만 이에 대응하는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자들은 두 구문이 ‘동일한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견해는 ‘전경’, ‘배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경’, ‘배경’을 설명할 때 흔히 제시하는 ‘얼굴/꽃병’ 착시 그림이다.



(그림 3) 얼굴/꽃병 착시⁷⁾

[그림 3]을 관찰할 때 전경으로 선택한 것이 특별한 자질을 가진다. 전경은 형상이나 형태를 가진 반면, 배경은 형태가 없으며, 공통된 윤곽선은 전경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형태와 윤곽선 이외에 전경은 구조나 일관성과 같은 사물의 특징을 가진 반면, 배경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획일적이다. 전경은 배경 앞에 있으며, 배경은 전경 뒤에서 다소 연속적으로 뻗어 있다. 요컨대, 전경은 배경보다 더 현저한 것으로 지각되며, 심리학적 연구에서 전경은 더 잘 식별되고 더 잘 기억되며 의미, 감정, 미적 가치와 연상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임지룡, 김동환 옮김, 2010, p. 234). 이런 현상은 언어 현상에도 나타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1) a. The bike is near the house
b. The house is near the bike

(11)에 관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통사적 차이에 대응하는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인지언어학자들은 이 두 구문이 ‘동일한 상황’을 달리 해석한다고 본다. 즉, (11a)는 ‘The bike’가 전경이 되고 ‘The house’가 배경이 되지만 (11b)는 반대로 ‘The house’가 전경이 되고 ‘The bike’가 배경이 된다. 두 문장에서 선택되는 주어는 전경이고 다른 요소(배경)보다 더 현저하다. 통사구조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기

7) 임지룡, 김동환 옮김(2003, p. 234)의 [그림 4.1]

위해 전경과 배경 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언어학자들은 특별한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황을 부호화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 서로 다른 개념화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임지룡, 김동환 옮김, 2003, pp. 3-4). 이처럼 주어와 보충어 모두에 존재하는 현저성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각각 통사적 전경(syntactic figure)과 통사적 배경(syntactic grou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임지룡, 김동환 옮김, 2010, p. 249). 이런 원리는 한 문장 내에서도 적용된다.

(12) Your wallet was, I think, on the desk

(12)에서 하나의 절-your wallet was on the desk-은 화자가 전하고 싶은 주요 내용을 제공한다(김종도, 나익주 옮김, 2001, pp. 244-248).

2.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 차이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은 '접속과 내포'라는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한 의미적 독립성/의존성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통사론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문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흘문장에서 어순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초점⁸⁾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겹문장에서 전달하는 정보에서도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의 한국어 문장을 살펴보자(박재연, 2007, p. 78).

(13) 오늘 캐나다에 살고 계시던 우리 삼촌이 귀국하셨어.

(14) a. 철수는 저녁을 먹는 동안 뉴스를 보았다.

b. 철수는 뉴스를 보는 동안에 저녁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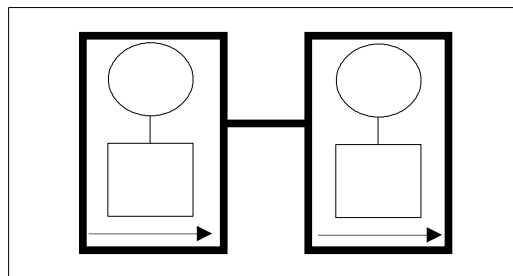
8) 초점은 문장 내부의 어떤 특정 부분을 지칭하며 고정조(H*)와 연합되어 F-표시된(F-marked) 통사적 구성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위혜경, 2007, p. 132)할 수 있는데 문장의 정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개 내지 네 개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용어도 저자에 따라 혼란스럽고 각각의 경우 서로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엄격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초점 현상은 담화적으로는 이전 문맥에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문에서 구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운율적으로 고정조의 피치로 표시된다. 의미적으로는 정체가 미확인된 구 지시체를 새로운 지시체와의 상등관계의 서술을 통해 그 정체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통사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초래하는 [+f]라는 자질을 지니는 통사적 구성소에 해당한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초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은 변형생성문법과는 철학적인 뿌리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임지룡, 2008, pp. 37-45 참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초점'과 '전경-배경'의 용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13)은 ‘오늘 우리 삼촌이 귀국하셨다’와 ‘우리 삼촌은 캐나다에 살고 계셨다’는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한다. 두 정보 중 일반적인 문맥에서 화자가 이 발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오늘 우리 삼촌이 귀국하셨다’일 것이다. 즉 (13)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경 정보는 ‘삼촌의 귀국’과 관련된 것이고 ‘삼촌의 캐나다 거주’는 그에 대한 배경 정보이다. 한편 (14a)와 (14b)는 모두 ‘철수가 저녁을 먹었다’와 ‘철수가 뉴스를 보았다’라는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나 (14a)에서는 ‘뉴스를 보았다’가 전경 정보인 반면 (14b)에서는 ‘저녁을 먹었다’가 전경 정보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본다면 주절의 정보가 ‘전경’ 정보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경-배경’ 정보는 접속과 내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접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접속문은 선행절과 후행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절의 의미관계로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등접속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문장이고 종속접속문은 선행절이 의미적으로 후행절에 종속되면서 이어진 문장이다. 문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a. 삼성이 이겼고 두산은 졌다.
b. 나는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

(15)는 접속 구조로 둘 이상의 도식적 연결 대상들(이 경우 과정들)을 소환하고 따로따로 윤곽을 부여한다. 각 절은 자신의 과정적 윤곽과 정교화터의 윤곽 사이의 대응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연결 대상을 정교화 한다(김종도 역, 1999, p. 466). (15a)는 각 절의 주어가 다른 반면 (15b)는 두 절이 동일한 주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5b)가 더 높은 정도로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5)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대등접속문의 도식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접속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독립적이다.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절이 독립적인 전경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종속접속문은 한 문장에 두 개의 절이 들어있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등접속’과 같지

만 한 절이 '전경'이 되고 나머지 한 절이 '배경'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배경'은 발화에서 부수적인 정보를, 전경은 화자가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을 의미한다. 원근화법과 전경화는 언어적으로 부호화되며 이것은 시각적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장면의 어떤 요소는 두드러지게 하고 다른 요소는 배경화하는 것처럼, 시각적 지각의 과정도 어떤 요소에 초점을 두고 다른 요소는 우리의 시각장 주변부로 강등시킨다(임지룡, 김동환 옮김, 2003, p. 8). 이는 문장의 내포와 접속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의 두 경우이다.

- (16) a. 선행절(전경) + 후행절(배경)
- b. 선행절(배경) + 후행절(전경)

(16)에서처럼 선행절이 '전경'이 되고 후행절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선행절이 '배경'이 되고 후행절이 '전경'이 될 수도 있다. 이때 두 절 중에서 어느 절이 '전경'이 되고 어느 절이 '배경'이 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접문장에 나타나는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전경으로, 다른 사건은 배경으로 설정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⁹⁾

- (17) a. 순차원리: 복문에서 순서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배경,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전경
- b. 인과원리: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배경, 결과가 되는 사건이 전경
- c. 포함원리: 범위가 넓은 사건이 배경, 좁은 사건이 전경
- d. 사건원리: 두 사건 중 주된 사건이 배경, 주 사건에 부속된 사건이 전경
- e. 돌발원리: 예견된 사건이 배경, 예견되지 못한 사건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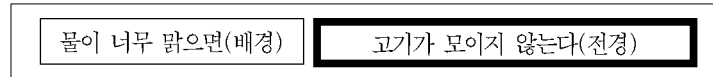
(17)의 원리는 (16)에서처럼 두 절이 명확히 드러나는 문장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18) a.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 b. 네가 노래를 부르니 모두들 좋아하는구나!

(18)은 기존 문법기술에서 종속접속의 예(이익섭, 채완, 1999, p. 381, 4b 예문)로 제시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접속에서는 두 사건이 '전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8a)에서 '물이 너무 맑으면'은 주절인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는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이 문장에서 '배

9) 탈미(2000, pp. 320-329)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원리를 약간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탈미는 Sequence principle, Cause-result principle, Inclusion principle, Contingency principle, Substitution principle로 제시하였다.

경'이 된다. 그러므로 '전경+전경'인 접속문과는 달리 '배경+전경'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굵은선: 전경).



(그림 5)

(18b)는 '순차원리'와 '인과원리'에 의해 '네가 노래를 부르니'가 '배경'이 되고 '모두들 좋아하는구나!'가 전경이 되는 것이다¹⁰⁾. 즉, [그림 5]에서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17)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접속과 내포에 의해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대상으로 절의 '전경', '배경' 해석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 a. 바람이 분다. 날씨가 춥다.
 b.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다.
 c. 바람이 부니 날씨가 춥다.

(19)는 두 홑문장과 그것이 확장된 겹문장이다. (19a)에서는 두 홑문장이 나열되어 있고 (19bc)는 (19a)의 두 문장이 연결어미 '-고'와 '-니'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셋 중에서 (19a)가 가장 느슨하게 통합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19b), (19c)의 순서이다. 이는 앞에서 보인 '전경'과 '배경' 원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도상적 근접성/거리 원리'에 따라 개념적으로 같이 속하는 개념단위들은 언어구조에 밀접하게 통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지룡, 윤희수 옮김, 2009, p. 100)에 두 문장이 나열된 (19a)보다는 (19bc)가 더 밀접하게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한 문장으로 통합된 (19bc) 중에서는 (19c)가 (19b)보다 더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연결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19b)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이 대등하지만 (19c)는 '인과관계'에 있다. 즉, 대등한 관계인 (19b)보다는 인과관계인 (19c)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19b)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등관계의 문장이기 때문에 '전경+전경'의 구조이고 (19c)는 인과관계이므로 두 절 중 한 절이 '배경'이 되는데 '전경+전경'의 구조보다는 '배경+전경'의 구조가 더 밀접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담화 층위에서 (19a)가 순서대로 나열된다면 '바람이 부-'는 것이 '날씨가 춥-'의 배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담화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은

10) 물론 전경과 배경의 역전 현상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자명하기 때문이다.¹¹⁾ 이 원리를 문장에 적용시켜보면 (19bc)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9bc) 모두 선행절이 후행절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b)와 (19c)의 의미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담화 층위보다는 하나의 문장 속에서 절이 다른 절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b)는 연결어미 ‘-고’에 의해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적으로 연결되었고 (19c)는 연결어미 ‘-니’에 의해 종속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19b)는 앞 절과 뒤 절이 모두 전경인 ‘전경+전경’의 구조인 반면 (19c)는 주절은 전경이 되고 종속절은 배경이 되는 ‘배경+전경’ 구조이다. 그런데 기존 관점에서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고 보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20) 날씨가 바람이 부니 춥다.

일반적으로 종속접속문인 (19c)에서는 주절인 ‘날씨가 춥다’가 전경이 되지만 (20)에서는 날씨가 추운 ‘이유’가 전경화된다. 즉, ‘바람이 부니’가 전경화된 문장이다. 이것은 통사론적으로 보면 내포의 관점에서 ‘부사절’이다. 이를 앞의 (19c)와 비교해 보면 ‘전경-배경’의 역전 현상¹²⁾이 일어난 것이다. (19c)에서는 ‘바람이 부니’가 ‘배경’이 되었지만 (20)에서는 주절인 ‘날씨가 춥다’가 배경이 되고 안긴절 ‘바람이 부니’가 원인이지만 전경이 되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살펴본 ‘순차원리’나 ‘사건원리’를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이 문장에서 먼저 제시되는 ‘날씨’와 주술 관계를 이루는 ‘날씨가 춥다’가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그 원인인 ‘바람이 부니’를 ‘전경화’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c)와 (20)을 보면 전통적으로 의미 차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던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 간의 의미 차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를 앞의 문장 (18)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a. 고기가 물이 너무 맑으면 모이지 않는다.
b. 모두들 네가 노래를 부르니 좋아하는구나!

(18)에서 주절인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가 전경이었으나 (18)’에서는 내포문인 ‘물이 너무

11) 화자는 말을 할 때 청자가 전혀 모르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의식하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보태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가 그 예비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장이나 담화를 구성하게 된다. (윤평현, 2008, p. 226)

12) 이와 같은 것은 문장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으로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과 ‘도둑’이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능동문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에서는 ‘경찰’이 주어로서 전경이 되며 ‘도둑’이 목적어로서 배경이 되는 반면 피동문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에서는 ‘도둑’이 주어로서 전경이 되며 ‘경찰’이 부사어로서 배경이 된다.

맑으면'을 강조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포문이 '전경'이 되는 것이다.

고기가 **물이 너무 맑으면(전경)** 모이지 않는다(배경)

[그림 5]'

종속접속문인 [그림 5]에서는 주절이 전경이 되지만 내포문인 [그림 5]'에서는 안경문장이 전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문장은 의미에는 차이가 생긴다. 이처럼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은 하나의 문장에 절이 두 개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의 절이 다른 절과 맺는 '인과'적 관계를 강조한 관점에서는 종속접속문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절이 다른 절 속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내포와 접속은 어미 형태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함을 지적(서태룡, 1979, pp. 109-135)한 선행 연구에서처럼 국어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 또한 의미론적으로 볼 때 의미의 차이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 차이 또한 국어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3. 국어교육적 적용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 차이에 관해 국어교육 분야에서 적용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자.

- (21) a.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 b.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장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장을 온전한 사고의 표현 단위로 알면서, 주술 관계가 둘 이상 들어 있는 겹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장의 짜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장의 변환을 통해 어떤 표현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문장의 짜임을 교수·학습하는 데에는 실제 국어 자료를 사용하여 살아 있는 문장의 탐구 및 이해 학습이 되도록 한다.

(21)은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던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이 교과서에 구체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은 의미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문장의 변환할 때 어떤 표현 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a. 문장의 종류(홀문장/접문장)
b. 배경과 전경
c. 접문장에 나타나는 두 절의 의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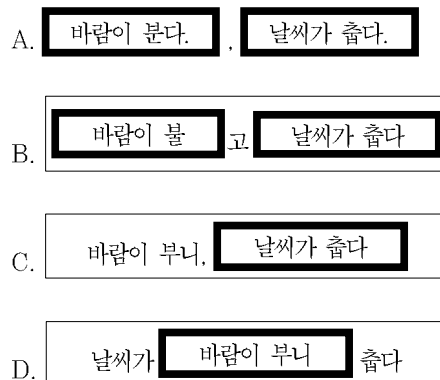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국어 문법 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경-배경’ 이론을 적용하여 내포문에서의 의미에 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23) a. 바람이 분다.
b. 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23a)의 문장과 대조하여 (23b)를 본다면 ‘바람이 분다’가 배경이 되고 ‘시원하게’가 전경이 된다. 즉, 홀문장에서 주어-서술어 이외의 부사어인 ‘시원하게’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접문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에서 달리 나타난다.

- (24) a. 바람이 분다. 날씨가 춥다.
b.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다.
c. 바람이 부니 날씨가 춥다.
d. 날씨가 바람이 부니 춥다.

(24a)의 두 홀문장이 확장되면 (24bcd)의 세 접문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앞의 (24bcd)는 (24a)를 기반으로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24b)는 접속에 의한 구문으로 [그림 6B]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24c)는 종속접속문에서 '원인'이 되는 절인 '바람이 부니'가 '배경'이 되고 '날씨가 춥다'가 '전경'이 되므로 [그림 6C]처럼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부사절을 내포한 문장인 (24d)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절이 '배경'이 되고 그 문장에서 하나의 절인 '바람이 부니'가 '전경'이 되어 [그림 6D]처럼 해석할 수 있다. 종속접속문에서는 종속절인 '바람이 부니'가 배경이 되지만 부사절을 안은문장에서는 부사절이 전경이 된다. 결국 기존의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지만 두 문장의 의미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대등 접속문인 (24b)는 국어 어미 '-고'의 형태/통사적인 의존성 때문에 두 절이 다소 독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인구어 접속사는 선행절이나 후행절에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적인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자리를 바꿀 때에도 접속사의 위치는 고정적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접속어미는 형태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접속어미는 선행절에 붙어서 함께 움직이(유현경, 2002, pp. 341-342)는 것에서 다소 의존적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학교문법에서는 통사론적인 관점의 결과를 반영하여 (24)와 같은 문장을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고 겹문장은 다시 안은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되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로 안긴문장의 구성 요소가 같은 경우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문장의 형태가 다름에도 의미적인 다름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문법 교육에도 명확한 의미 차이에 관한 기술을 하지 않았는데 (24cd)에서처럼 구성 요소가 동일하더라도 [그림 6CD]와 같은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학교문법 교육에서도 반영하여 지도해야 한다.

IV. 마무리

이 연구는 통사론적으로 종속접속문이나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다루어 왔던 문장의 의미 차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국어교육적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통사론적으로 '접속'의 관점에서는 종속접속문으로 처리하였고 '내포'의 관점에서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처리해 온 문장에 관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들의 의미 차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통사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문장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인지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이들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접속과 내포가 국어에서는 동일한 위치의 어말어미로 실현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 하지만 통사론적인 처리와 달리 인지언어학적인 '전경'과 '배경' 이론에 근거해 살펴보면 국어의 접속과 내포는 개별 문장에서 선행절

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이 연구 결과 인지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장의 구조가 다르면 의미도 달리 나타나는데 기존에 의미 차이에 관해 언급되지 않았던 종속 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도 달리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된 학교문법 교육에서 지금까지의 의미 차이에 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왔던 것처럼 의미 차이에 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두 문장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2004).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우리말연구**, 15, 23-51.
- 김두식, 나익주 역(2010). **인지언어학**.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Cruse, D. A., & Croft, William(2004).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억조(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 구현 양상-8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14(3), 25-52.
- 김종도 역(1998). **인지문법의 토대1**. 서울: 박이정.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1*.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김종도 역(1999). **인지문법의 토대2**. 서울: 박이정. Langacker, R.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2*.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김종도, 나익주 옮김(2001). **문법과 개념화**.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Langacker, R.W.(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 김태엽(2009). 내포문의 부사절과 접속문의 종속절. **학교교육연구**, 5, 1-17.
- 남기심, 고영근(1985, 2011).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서울: 탑출판사.
- 박덕유(2006). **학교문법론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역락.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한국어 의미학**, 22, 73-94.
- 서태룡(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109-135.
- 위혜경(2007). 초점 현상 분석에 의한 통사구조, 정보 구조, 담화구조의 관련성 탐구. **생성문법 연구**, 17(2), 123-164.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4.
- 유현경(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 16, 333-352.
- 유현경(2011a).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389-426.
- 유현경(2011b). 한국어 어말 어미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 **어문논집**, 46, 189-211.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이관규(1999). 대등문·종속문·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칭어문**, 27, 753-780.
- 이관규(2002). 국어 부사절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와 그 한계점. **언어**, 27, 399-416.
- 이은경(2002). 접속문의 대등성과 종속성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3, 237-262.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서울: 태학사.
- 이익섭, 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 임지룡, 김동환 옮김(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서울: 태학사. Cruse, D. A. (2000).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임지룡, 김동환 옮김(2003). **인지언어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Lee, D. (2001).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임지룡, 김동환 옮김(2010). **인지언어학 개론: 개정판**. 서울: 태학사. Ungerer, F., & H. J. Schmid. (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Longman.
- 임지룡, 윤희수 옮김(2009). **인지문법론**.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Radden, G., & R. Dirven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조은영(2010). 전경과 배경의 관점에서 본 스페인어 복합문 분석. **언어과학연구**, 54, 253-274.
-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1*. Cambridge, MA: MIT Press.
-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a). **고등학교 문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b).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문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편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85). **고등학교 문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윤여탁 외(2013). **독서와 문법**. 서울: (주)미래엔.
- 이관규 외(2013). **독서와 문법**. 서울: 비상교육.
- 이도영 외(2013). **독서와 문법**. 서울: 창비.
- 이삼형 외(2013). **독서와 문법**. 서울: 지학사.
- 한철우 외(2013). **독서와 문법**. 서울: (주)교학사.

• 논문접수 : 2014-09-01/ 수정본접수 : 2014-09-30/ 게재승인 : 2014-10-13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Difference of Sentences that Subordinate Conjunctive and Embeded of Adverbial Clause

Eok-Jo Kim

(Assistan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Gyeongju)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iscuss the semantic differences in sentences treat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in syntax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to provide metho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a sentence was treated as a subordinate conjunctive sent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junction' and as an adverbial clause 'embedment'. There seemed no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hem. However, this study raises questions about treating the meaning of the two sentences equally from the viewpoint of cognitive linguistics that sentence meaning varies depending on sentence structure and examined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ntences. Based on this, this paper considers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by highlighting semantic differences also in school grammar.

Although 'conjunction' and 'embedment' are cross-linguistic grammatical processes for sentence extension, it is difficult to morphologically differentiate them in Korean language that grammatical category is determined by a word ending. Therefore, conjunction and embedment in Korean language should be differentiated by semantic relation between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in individual sentences. This study proposes that subordinate conjunctive sentences and adverbial clauses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viewpoint of cognitive linguistics that sentence meaning varies depending on sentence structure. Moreover, this study indicates that conjunction and embedment in Korean language should be separated by semantic relation between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in individual sentences in terms of cognitive linguistics. Based on these results, sentence meaning differs depending on sentence structure from the standpoint of cognitive linguistics. Thus, the meaning of subordinate conjunctive sentences and adverbial clauses that have been previously regarded that they had the same meaning can be different. They have been described as if they had the same meaning in previous studies because there has

been no indication of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m thus far in unified school grammar. From now on, grammatical description should reflect the fact that there ar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ntences.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of embedment and conjunction and their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apter 2. Then, it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m in Korean language based on a cognitive-linguistic perspective ‘figure-ground relationship’ in Chapter 3. This paper proposes that grammatical description should be made by reflecting the fact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ntences in the unified school grammar.

Key Words : conjunction, embedment, cognitive linguistics, foregrounding, backgrounding, conjunctive endings, subordinate clause, main clause, adverbial clause